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10. 26. 수. AM1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대강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 좌장 : 정현철 (사)안산노동안전센터 센터장

○ 1부. 반월시화산업단지 현황 및 휴게실태 조사결과 보고

10:00~10:10	참가자 소개 및 인사
10:10~10:30	민주노총 (경기지역 노동자) 휴게 실태조사결과 보고 -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10:30~10:50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제언 - 이미숙 (월담노조)

○ 2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

11:00~11:50	안산시 노동정책과 시흥시 노사민정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산단혁신팀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	---

- ▶ 주최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
▶ 후원 : ○▽△◇ 인권재단사람

자료집 목차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부] 반월시화산업단지 현황 및 휴게실태 조사결과 보고

- 202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복지실태 조사결과 ————— 4
-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 실태와 쉼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 25

[2부]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

- 안산시 노동정책과 ————— 47
- 시흥시 노사민정팀 ————— 49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52
- 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산단혁신팀 ————— 62
-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 64

정책토론회 진행순서

- 인사말

- 1부_반월시화산업단지 현황 및 휴게실태 조사결과 보고

10:00~10:20	민주노총(경기지역 노동자) 휴게실태 조사결과 보고 - 박준도(노동자의 미래)
10:20~10:40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제언 - 이미숙(월담노조)

- 2부_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

10:40~11:30	안산시 노동정책과 시흥시 노사민정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산단혁신팀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	---

202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복지실태 조사결과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반월·시화 산업단지 노동자의 43.2% 휴게실 없어.
휴게실 부족할 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직접적 피해
기존 휴게실 공간도 좁고 개수도 부족해. 개선할 것 많아.
공동 휴게실, 부족한 휴게실의 좋은 대안. 지역사회가 현실화시켜야

1.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사업장 휴게실 현황



그림 1. 반월시화 ‘휴게실 없음’ 비중

	경기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1개	157	34.3	31.4	37.2	36.2	49.4	39.3	22.7	23.2
2개 이상	103	22.5	32.6	11.8	5.3	10.6	21.4	34.9	51.5
없다	198	43.2	36.0	51.0	58.5	40.0	39.3	42.4	25.2
계	4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유무 (반월·시화)

반월·시화 산업단지 458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2%가 휴게실 없다고 응답함. 제조업의 경우 36.0%, 비제조업의 경우 51.0%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함.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5%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해 작은사업장에서 휴게실 부족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반월·시화 산업단지 실태조사에서 한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조차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 42.4%가 휴게실이 없다고 대답.

	경기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1개	157	34.3	32.6	35.0	20.9	39.6	47.9	31.2	26.7	31.1	43.5
2개 이상	103	22.5	29.9	19.1	26.4	18.2	12.5	6.2	13.3	36.8	8.7
없다	198	43.2	37.5	45.9	52.8	42.1	39.6	62.5	60.0	32.1	47.8
계	4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2. 직종별 휴게실 유무 (반월·시화)

생산직은 37.5%, 사무판매직(비생산직)은 45.9%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함.

“휴게실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어요. 일하는 곳에서 쉬는 건 눈치 보이고, 그래서 옥상, 야외,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쉬어요. ... 흡연자는 잠깐씩 나갔다가 들어오고, 비흡연자는 화장실에 앉아서 쉬거나 실험실에서 잠깐씩 걸어 다니며 이야기해요. 일하는 공간과 분리된 휴게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1351, 제조업, 생산직)

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 미설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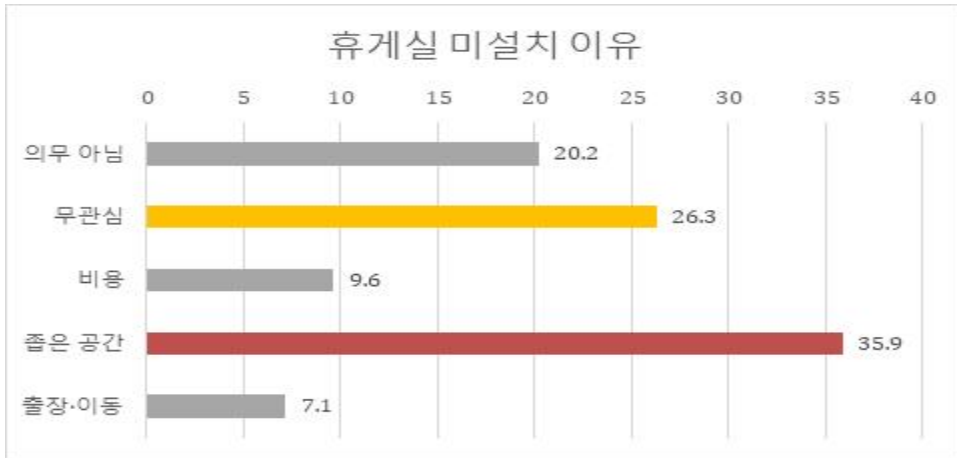


그림 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 미설치 이유

‘회사가 왜 설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좁은 공간 탓’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음.

	경기	비중	제조업	서비스업	1~19	20~49	50~99	100~299	300~
의무 아님	40	20.2	17.6	21.1	13.5	23.5	4.5	35.7	36.0
무관심	52	26.3	31.8	22.1	23.6	23.5	45.5	25.0	24.0
비용	19	9.6	9.4	9.6	5.6	14.7	22.7	10.7	4.0
좁은 공간	71	35.9	35.3	36.5	48.3	32.4	22.7	17.9	28.0
출장·이동	14	7.1	4.7	9.6	9.0	2.9	4.5	7.1	8.0
다른 공간	2	1.0	1.2	1.0	0.0	2.9	0.0	3.6	0.0
계	1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3.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미설치 이유 (반월·시화)

<표 3>을 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좁은 공간 탓’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짐.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35.7%였고, ‘무관심’이 25.0%임. 이런 경향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휴게실 문제는 비용보다는 사업주의 관심, 작업장이나 사무실의 업무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가까운 공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임을 시사.

3.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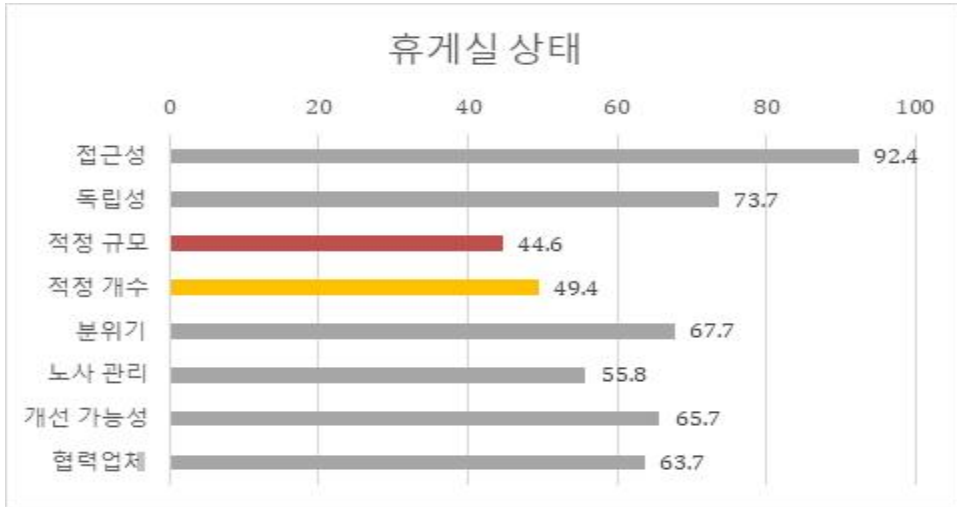


그림3. 반월·시화 휴게실 상태

휴게실이 있더라도 공간이 좁거나 사업장 규모 대비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에서 보듯, ‘5분 내 거리에 있는가’(접근성)에 대해서만 92.4%가 긍정적으로 대답할 뿐, ‘휴게실이 독립적인 공간인가’(독립성)에 대해서는 73.7%에 그치고 있음. 사업장 인원 대비 ‘공간이 좁은가’(적정 규모)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이 55.4%(100-44.6)로, 휴게실이 있다 해도 좁다는 의견이 더 많음. 회사 규모 대비 ‘휴게실 숫자가 부족한가’(적정 개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4%만이 ‘부족하지 않다’고 대답함.

‘노사가 협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노사 관리)라는 질문에는 55.8%만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휴게실 운영,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65.7%만이 ‘그렇다’고 대답함. ‘협력업체, 하청업체도 같이 쉴 수 있는가’(협력업체)에 대해서는 63.7%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함.

	접근성	독립성	적정규모	적정 수	분위기	노사관리	개선가능성	협력업체
경기	92.4	73.7	44.6	49.4	67.7	55.8	65.7	63.7
제조업	92.7	74.2	43.0	45.7	68.9	57.0	62.9	68.9
비제조업	92.0	73.0	47.0	55.0	66.0	54.0	70.0	56.0
1~19	93.7	68.3	42.9	58.7	61.9	57.1	58.7	57.1
20~49	96.1	60.8	49.0	43.1	58.8	45.1	52.9	62.7
50~99	88.2	67.6	50.0	44.1	61.8	41.2	61.8	47.1
100~299	94.7	86.8	39.5	36.8	71.1	55.3	63.2	65.8
300 ~	90.5	83.8	44.6	52.7	79.7	70.3	81.1	74.3

표4.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상태 (반월·시화)

<표 4>에서 보듯, 접근성(5분 거리)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다만 독립성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렇다는 응답비중이 60%대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에서의 응답률 80%대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남. 인원대비 적정 규모인지, 회사 규모 대비 적정 개수인지에 대해서는 10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게 나타남. 각각 39.5%, 36.8%에 불과.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탕비실하고 탈의실이 전부예요. 탈의실은 멀리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예요. 휴게실은 없고 흡연실만 있어요.” (3684, 제조업, 반숙련직)

4.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 이용 현황

	경기	비중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매일	130	50.0	48.5	51.6	52.2	45.7	56.0	45.8	0.0
주 1~2회	61	23.5	25.0	21.8	26.1	27.6	17.9	20.8	0.0
월 1~2회	15	5.8	6.6	4.8	6.5	8.6	3.6	0.0	0.0
아용안한다	54	20.8	19.9	21.8	15.2	18.1	22.6	33.3	100.0
계	2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5. 성별, 세대별 휴게실 이용현황 (반월·시화)

사업장에 ‘휴게실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휴게실 이용 빈도를 확인한 결과가 <표5>임. 매일 휴게실을 이용한다는 비중 50.0%임. 성별이나 세대별로 나뉘 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음.

	경기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매일	130	50.0	45.7	58.0	63.5	47.1	41.2	47.4	46.0
주 1~2회	61	23.5	24.5	21.0	14.3	23.5	32.4	18.4	29.7
월 1~2회	15	5.8	7.3	4.0	4.8	2.0	2.9	10.5	8.1
이용 안 한다	54	20.8	22.5	17.0	17.5	27.4	23.5	23.7	16.2
계	2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6. 업종별, 규모별 휴게실 이용현황 (반월·시화)

	경기	비중	생산직	사무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매일	130	50.0	55.6	47.1	51.2	45.6	41.4	66.7	50.0	56.9	50.0
주 1~2회	61	23.5	15.6	27.6	23.3	25.0	44.8	16.7	16.7	13.9	25.0
월 1~2회	15	5.8	4.4	6.5	7.0	7.6	3.4	0.0	16.7	4.2	0.0
이용 안 한다	54	20.8	24.4	18.8	18.6	21.7	10.3	16.7	16.7	25.0	25.0
계	2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7. 직종별 휴게실 이용현황 (반월·시화)

	경기	비중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11~35	36~40	41~47	48~52	53~
매일	130	50.0	73.1	46.6	51.4	70.6	46.9	48.4	50.8	57.1
주 1~2회	61	23.5	3.8	26.2	25.7	11.8	28.5	25.8	14.9	21.4
월 1~2회	15	5.8	0.0	6.3	8.6	0.0	7.7	0.0	7.5	0.0
이용 안 한다	54	20.8	23.1	20.9	14.3	17.6	16.9	25.8	26.9	21.4
계	260	10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8. 임금, 노동시간과 휴게실 이용현황 (반월·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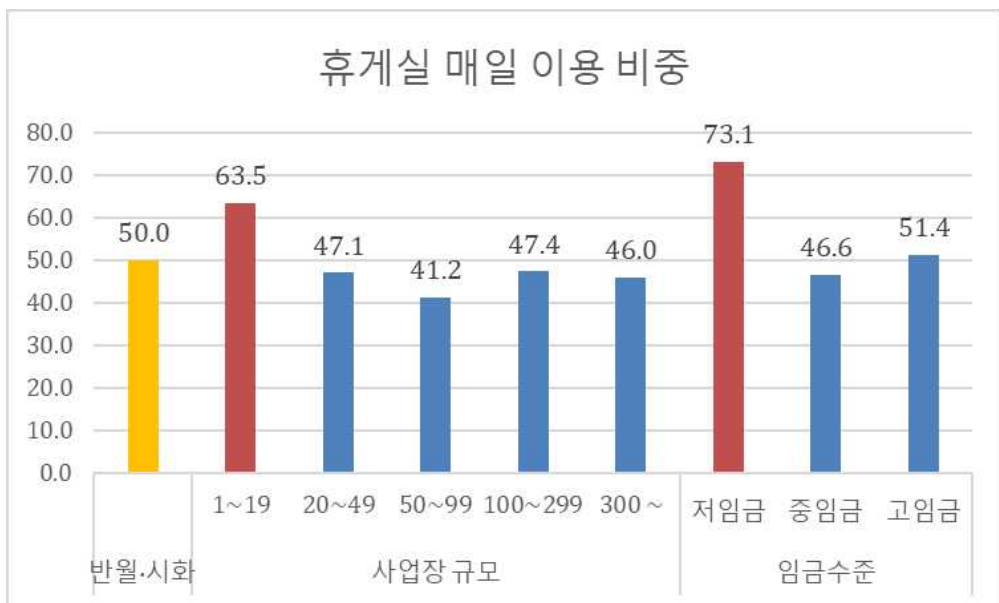


그림 4. 반월·시화 휴게실 매일 이용 비중

하지만 사업장 규모나 임금 수준별로 보면 차이가 나타나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46.0%)보다는 20인 미만(63.5%) 작은 사업장에서의 휴게일 매일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또 고임금(51.4%)보다는 저임금 노동자(73.1%)의 휴게일 매일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식비를 줄이기 위해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노동자나, 마땅히 다른 곳에서 쉴 곳이 없는 노동자는 대부분 작은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임. 휴게실의 필요도나 활용도, 모두 저임금·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높고, 그들에게 더 절실한 것.

		경기	비중
멀다		3	5.8
다른 용도로 이용		2	3.8
낙후되었다		10	19.2
눈치보인다		7	13.5
바쁘다		22	42.3
기			
타	필요없다	2	3.8
	내 자리에서 쉰다	1	1.9
	다른 사람 이용	2	3.8
	다른 곳 이용	1	1.9
	폐쇄	2	3.8
계		52	100.0

표9. 휴게실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반월·시화)

한편, 휴게실이 있지만 이용 안 하는 이들의 주된 이유는 ‘바빠서’인 것으로 나타남. 42.3%.

5.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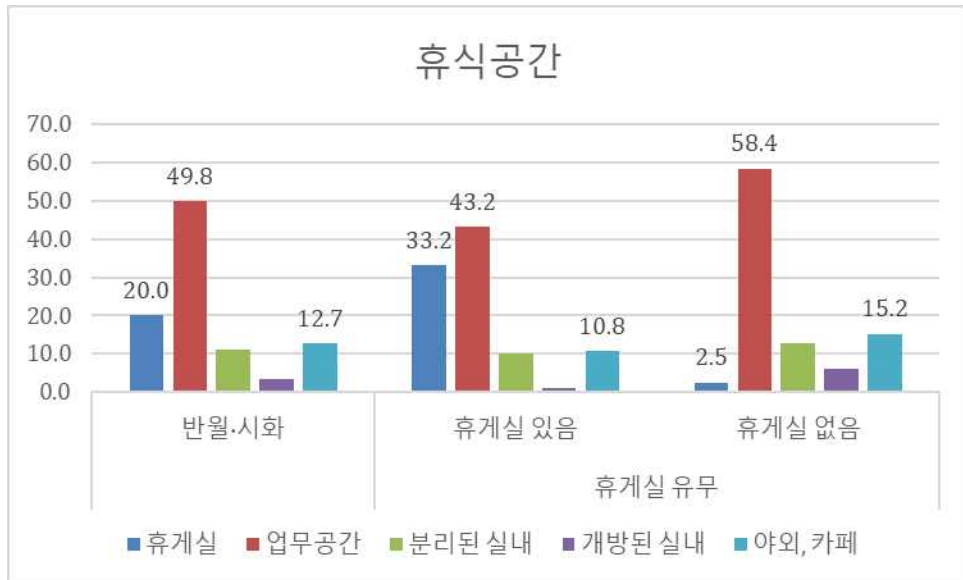


그림 5. 반월·시화 휴게실 유무와 휴식공간

휴게실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반월·시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은 업무공간임. <그림 5> 를 보면, 49.8%가 ‘업무공간에서 업무 중 틈틈이’ 쉬고 있다고 응답한 것.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에 그쳤고, 12.7%는 야외 공터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음.

업무공간에서 쉬거나 야외에서 쉬는 비중이 높은 건 휴게실이 없기 때문임. <그림 5>을 보면,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업무공간에서 쉬는 비중이 43.2%로 낮아지면서 휴게실에서 쉬는 비중이 각각 33.2%로 높아진 반면,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58.4%가 업무공간에서 쉬고 있고, 15.2%는 야외 공터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음.

	경기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휴게실	91	20.0	21.2	19.8	17.8	7.1	25.4	16.7	33.7
업무공간	227	49.8	47.0	52.5	53.3	54.1	47.3	45.5	44.9
분리된 실내	51	11.2	13.6	7.9	11.2	10.6	12.7	13.6	9.2
개방된 실내	15	3.3	3.0	4.0	5.3	7.1	0.0	1.5	0.0
야외, 카페	58	12.7	13.1	11.4	10.5	18.8	12.7	15.2	9.2
차량	14	3.1	2.1	4.5	2.0	2.4	1.8	7.6	3.1
계	4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0. 업종별, 규모별 휴식공간 (반월·시화)

	경기	비중	생산직	사무·판매직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숙련직	반숙련직	단순직
휴게실	91	20.0	24.3	17.9	15.7	19.5	16.7	18.8	13.3	25.5	26.1
업무공간	227	49.8	38.9	54.8	55.1	56.0	45.8	68.8	46.7	37.7	39.1
분리된 실내	51	11.2	17.4	8.3	6.7	7.5	14.6	6.2	6.7	20.8	8.7
개방된 실내	15	3.3	4.2	2.9	3.4	1.9	4.2	6.2	6.7	3.8	4.3
야외, 카페	58	12.7	11.8	13.1	14.6	13.8	12.5	0.0	26.7	9.4	13.0
차량	14	3.1	3.5	2.9	4.5	1.3	6.2	0.0	0.0	2.8	8.7
계	4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1. 직종별 휴식공간 (반월·시화)

	경기	비중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11~35	36~40	41~47	48~52	53~
휴게실	91	20.0	17.3	17.2	35.9	25.0	19.2	10.9	23.4	26.1
업무공간	227	49.8	57.7	50.1	41.5	58.3	53.1	60.9	38.3	30.4
분리된 실내	51	11.2	9.6	12.2	7.5	8.3	6.2	14.1	18.7	17.4
개방된 실내	15	3.3	3.8	3.5	1.9	0.0	2.7	3.1	3.7	13.0
야외, 카페	58	12.7	9.6	13.4	11.3	5.6	16.1	7.8	12.2	8.7
차량	14	3.1	1.9	3.5	1.9	2.8	2.7	3.1	3.7	4.3
계	4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2. 임금, 노동시간과 휴식공간 (반월·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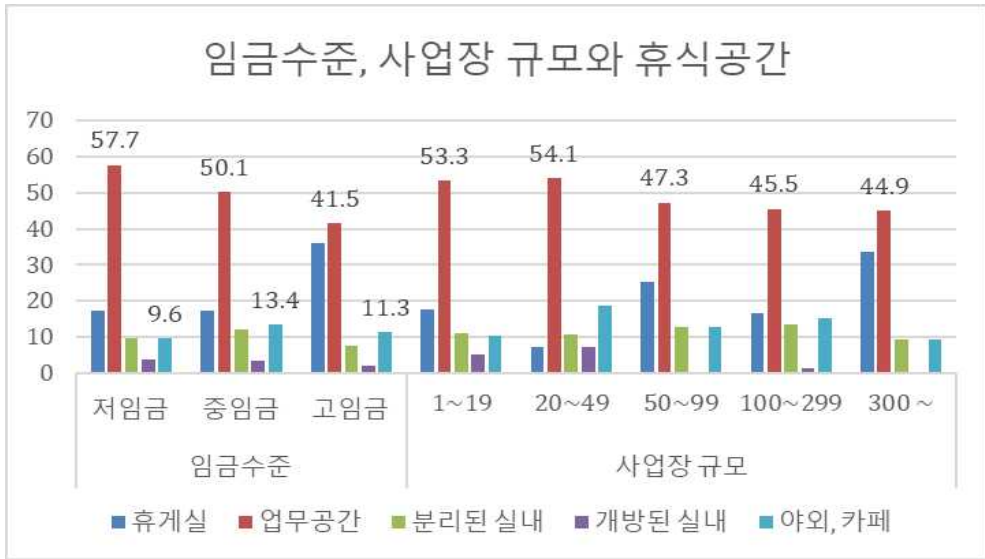


그림 6. 반월·시화 임금수준, 사업장 규모와 휴식공간

임금수준에 따라 실제로 쉬고 있는 휴식공간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남. 저임금 노동자들일수록 업무공간에서 쉰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저임금 57.7%, 중임금 50.1%, 고임금 41.5%), 대기업보다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일수록 업무공간에서 쉰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반대로 대기업 사업장일수록,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휴게실에서 쉰다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남.

6.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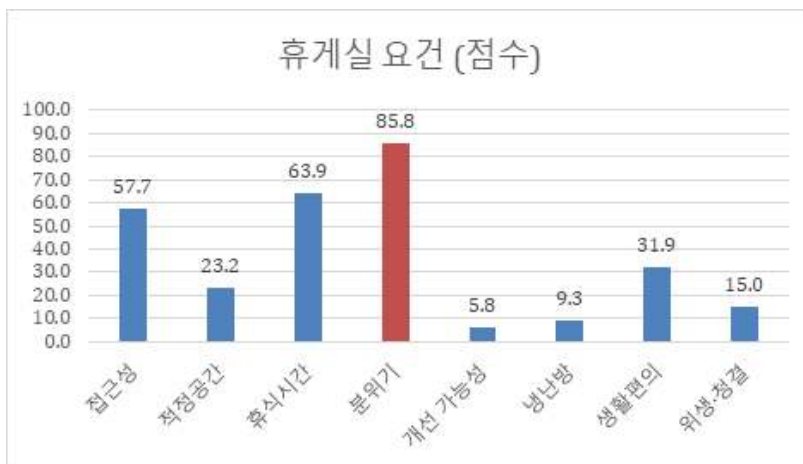


그림 7. 반월시화 휴게실 요건(점수)

경기 반월·시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휴게실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임. 휴게실 요건 항목 중 1순위 선택을 200점, 2순위 선택을 100점으로 가산해 평균을 내보면,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분위기)가 8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음.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손꼽힌 것은 ‘충분한 휴식시간’(휴식시간)으로 63.9점이고, 세번째는 ‘접근성, 가까운 거리’(접근성)로 57.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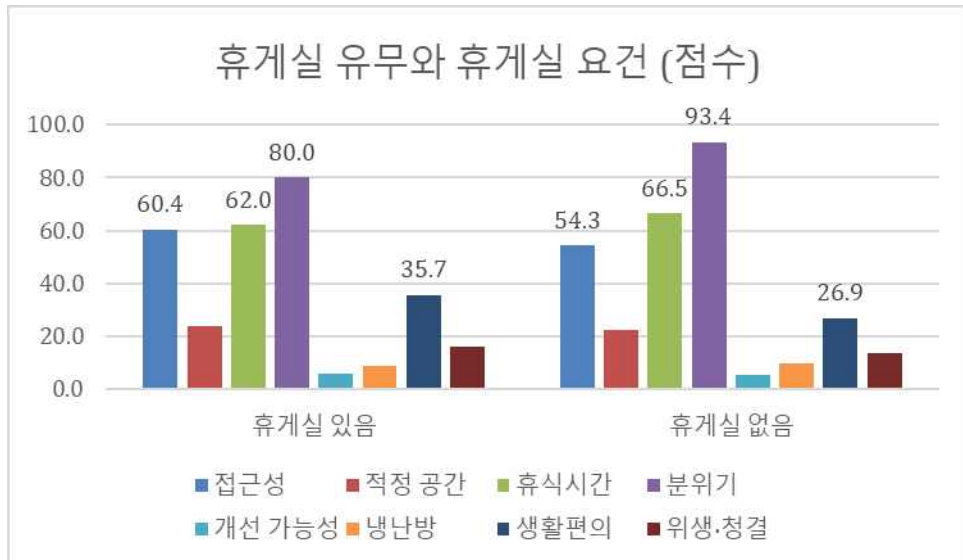


그림 8. 반월시화 휴게실 유무와 휴게실 요건(점수)

하지만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는 분위기(80.0점)도 손꼽지만 접근성(60.4점)도 중요하게 보고, 생활편의시설 (35.7점)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에게는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다른 요인들도 휴게실 요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휴게실의 존재 자체가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요인임을 시사.

7.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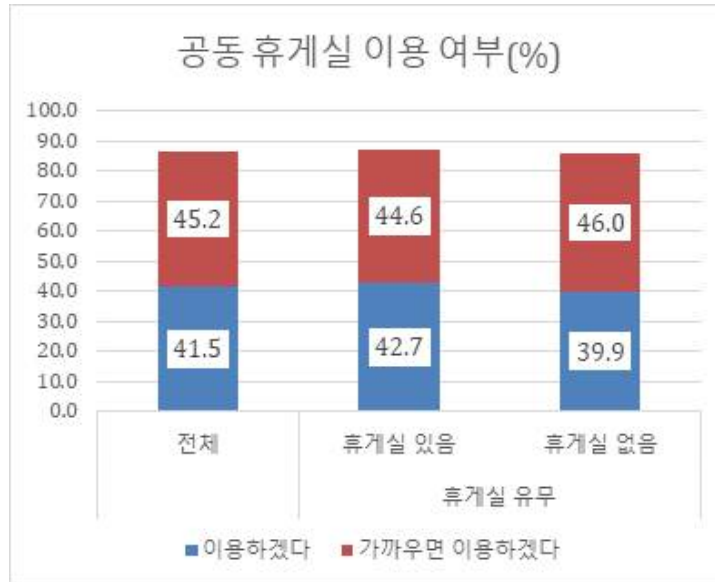


그림 9. 반월·시화 공동 휴게실 이용 의사

공동 휴게실이 생기면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86.7%나 됨. 주목할 것은 사업장에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나(87.3%),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85.9%)나 모두 이용할 의사가 높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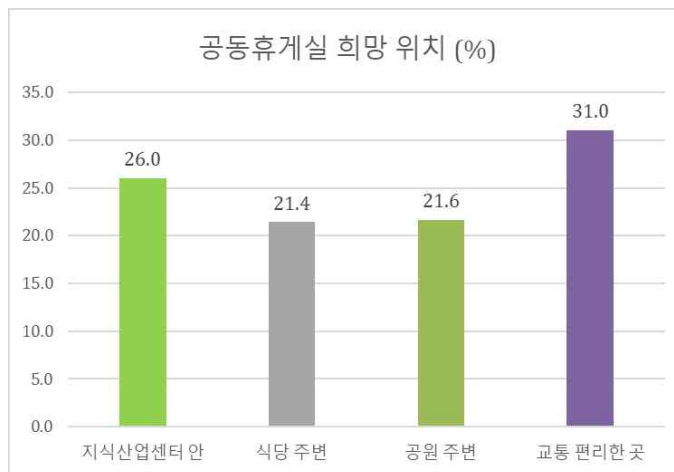


그림 10. 반월·시화 공동휴게실 희망 위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동 휴게실을 희망하는 의견이 31.0%로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희망하는 곳은 ‘지식산업센터 안’으로 26.0%인 것으로 나타남.

8. 결론 및 제언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진행된 휴게실 및 복지 실태조사에서 다음이 확인됨.

첫째, 반월·시화 산업단지 노동자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3.2%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5%가 휴게실이 없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 중 일부는 야외, 카페 등으로 나가 쉬기도 하지만 대부분 (49.8%) 업무공간에서 ‘눈치를 보며’ 짬을 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휴게실이 부족할수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남. 휴게실 이용률은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에게서 더 높음. 저임금 노동자에게 휴게실은 노동에 지친 육체와 정신을 쉬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먹는 공간이기도 하며, 커피값을 아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 휴게실이 없거나 부족한 고임금 노동자들은 외부공간, 카페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공간에서 대기할 뿐임.

아이러니하게도 휴게실 의무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정작 휴게실 활용도도 높고, 누구보다 휴게실이 절실한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음.

셋째, 휴게실이 있다 해도 좁은 공간, 부족한 개수 등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원 대비 적정 공간인지 대해서도 44.6%만이 좁지 않다고 대답했을 뿐이고, 규모 대비 적정 개수인지에 대해서도 49.4%만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함. 휴게실이 있다 해도 좁고 부족한 것. 응답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심층 면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부족한 휴게실의 실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

넷째, 휴게실 요건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설 수 있는 분위기’임. ‘설 수 있는 분위기’란 관리자나 상사, 선임(혹은 후임)의 눈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 요건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장 내 분위기일 수도 있음.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보다는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에게서 분위기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에서, 휴게실의 존재 자체가 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독립된 공간에 마련된 휴게실은 그 자체로 눈치를 덜 봐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함. 휴게실 자체가 ‘눈치 보지 않고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다섯째, 공동 휴게실은 휴게실 부족 문제, 좁고 열악한 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공동 휴게실을 설치하면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86.7%임.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공동 휴게실 호응도가 매우 높았음. 중요한 것은 사내 휴게실이 있는 노동자나,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나 모두 공동 휴게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공동 휴게실은 공간이 좁은 20인 미만,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휴게실 문제뿐만 아니라 사내 휴게실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장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¹⁾

여섯째, 휴게실 설치가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실질화 되려면, 휴게실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사간 협의와 공동 관리가 중요함. 특히 공동 휴게실의 경우 복수의 사용자와 복수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방치될 수 있음.

공동 휴게실은 산업단지 내 다른 복지사업과 연계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매점, 작업복 세탁소, 심리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등이 바로 그것. 지자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면 휴게실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복지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음.

1) 서울과 인천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으로, 빠른 분양과 원활한 임대를 위한 용도로, 공동 휴게실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금천구는 2020년 2월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을 개정해 건축물 내 건물,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커뮤니티 시설(세미나실, 회의실, 휴게실, 세탁실 등)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시설의 종류 및 설치규모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휴게실 의무화와 함께 진행될 정부의 휴게실 지원 사업은, 작은 사업장을 위한 ‘공동 휴게실’을 곳곳에 만들고 이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지식산업센터처럼 대규모 집적 시설에는 층마다 공동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 식당 주변, 공원 주변 등 여러 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용자 단체(예컨대 입주 기업체 대표자협의회)와 지역 노동조합이 공동 휴게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원청 대기업과 지역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휴게실은 원청·대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는데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작은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자’ 운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p>서울 A</p>	 <p>서울 B</p>	 <p>인천 C</p>	<p>왼쪽 사진은 서울(A, B)과 인천(C)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조성된 공동 휴게실. 이 휴게공간은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용부분. 부동산과 관리사무소 전언에 따르면 더 좋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도 많고, 요즘은 이게 ‘트렌드’라고 함.</p>
--	--	--	--

[보론 1]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

	경기	비중	제조업	비제조업	1~19	20~49	50~99	100~299	300~
교부	367	80.1	87.7	71.6	69.7	89.4	78.6	87.9	83.8
보기만 함	58	12.7	7.6	18.1	15.8	7.1	16.1	9.1	13.1
본 적 없음	33	7.2	4.7	10.3	14.5	3.5	5.4	3.0	3.0
계	4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7. 업종별, 규모별 임금명세서 교부 현황 (반월·시화)

19.9%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비제조업은 28.4%임.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3%가 교부받지 못했고, 14.5%는 본 적도 없음.

[보론 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복지실태와 희망하는 복지

경기	68.2	31.8	54.5	28.6	50.2	28.9	23.4	63.9	16.4	48.9
제조업	75.0	39.0	62.7	44.1	68.6	31.4	28.8	77.5	17.8	60.2
비제조업	60.3	23.5	45.1	10.8	28.9	26.0	17.2	48.0	14.7	35.8
1~19	64.5	30.3	38.8	6.6	23.7	16.4	9.2	36.2	9.9	44.1
20~49	72.9	30.6	51.8	14.1	40.0	23.5	9.4	60.0	11.8	41.2
50~99	60.7	25.0	55.4	23.2	51.8	17.9	23.2	64.3	10.7	44.6
100~299	66.7	30.3	62.1	43.9	75.8	45.5	21.2	89.4	15.2	56.1
300 ~	76.8	43.4	74.7	66.7	82.8	47.5	55.6	92.9	35.4	60.6

표18. 지역별 복지실태 (반월·시화)

68.2%가 식비를 지원받고 있고, 63.9%는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음. 여름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비중은 48.9%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경기	61.1	53.2	19.2	11.3	13.3	29.2	23.5	21.0	7.0	51.4
남성	43.1	55.4	20.1	12.7	12.7	34.8	32.8	18.1	12.3	47.5
여성	76.5	51.3	18.5	10.1	13.9	24.4	15.5	23.5	2.5	54.6
20대	69.7	46.1	23.7	26.3	15.8	23.7	3.9	10.5	3.9	64.5
30대	67.6	50.3	14.0	9.5	16.8	28.5	34.6	19.0	6.7	47.5
40대	51.4	62.7	22.5	5.6	9.2	30.3	26.1	26.8	10.6	43.0
50대	50.0	50.0	23.8	11.9	9.5	38.1	4.8	26.2	2.4	69.0
60대	66.7	0.0	0.0	0.0	0.0	33.3	0.0	66.7	0.0	100.0

표19. 성별, 세대별 복지 희망 (반월·시화)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경기	60.3	52.6	19.2	11.5	13.4	29.8	23.5	21.1	6.8	52.1
제조업	41.4	58.6	23.3	12.8	11.9	36.6	27.3	16.7	7.9	55.5
비제조업	81.9	45.7	14.6	10.1	15.1	22.1	19.1	26.1	5.5	48.2
1~19	83.0	59.2	12.2	4.8	12.2	22.4	15.6	24.5	2.0	55.1
20~49	70.6	48.2	22.4	12.9	12.9	30.6	28.2	16.5	4.7	44.7
50~99	66.7	40.7	14.8	22.2	18.5	35.2	16.7	14.8	7.4	50.0
100~299	44.3	62.3	31.1	6.6	6.6	27.9	27.9	11.5	14.8	55.7
300 ~	26.3	49.5	22.1	16.8	16.8	35.8	32.6	29.5	11.6	49.5

표20. 업종별, 규모별 복지 희망 (반월·시화)

68.2%가 식비를 지원받아도 (1순위를 200점, 2순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식비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음. 61.1점임. 남성보다는 여성(76.5점)이, 40대와 50대 보다는 20대(69.7점)와 30대(67.6점)가,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81.9점)에서, 대기업보다는 작은 사업장에서(20인 미만 83.0점) 식비 요구가 높음.

	식비	교통비	휴게실	통근버스	사내식당	교육	육아	건강검진	의료실	여름휴가
경기	61.6	53.3	19.1	11.3	13.6	29.0	23.7	20.2	6.2	52.2
저임금	105.9	51.0	7.8	5.9	7.8	17.6	17.6	25.5	2.0	47.1
중임금	58.7	51.8	22.2	12.3	15.0	28.1	24.0	17.7	6.3	54.8
고임금	36.0	66.0	10.0	10.0	10.0	46.0	28.0	32.0	10.0	40.0
11~35	97.3	40.5	10.8	2.7	13.5	21.6	13.5	43.2	2.7	40.5
36~40	65.7	52.6	23.5	12.7	13.6	22.1	18.3	20.2	5.6	58.2
41~47	63.5	63.5	12.7	6.3	19.0	30.2	25.4	14.3	1.6	47.6
48~52	41.9	53.3	15.2	13.3	10.5	44.8	31.4	20.0	16.2	43.8
53~	45.5	50.0	22.7	18.2	9.1	36.4	50.0	9.1	0.0	54.5

표21. 임금, 노동시간과 복지 희망 (반월·시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일수록 식비 지원 요구가 높아. 105.9점.

[참고자료]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1. 조사목적

- 2022년 8월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휴게실 유무 및 휴게실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 실태 및 휴식 형태를 분석,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실 요구안 마련
- 휴게실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교육비, 여름 휴가 등 산업단지 노동자의 복지 수준과 복지 요구 확인

2. 개요

○ 조사 방법 : 편의추출조사

- 반월·시화·시화MTV 일대에서 거리 설문 조사 및 온라인 설문 조사

○ 조사 기간 : 3.23 ~ 4.30

○ 조사 항목

- 인구학적 특성 : 성, 생년
- 노동시장 특성 : 근무지(지역), 업종(중분류), 직종(대분류), 사업장 규모, 근무속, 고용형태, 노조
- 노동조건 특성 :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 복지실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식비, 교통비, 교육비, 여름유급휴가 등
- 휴게실 실태 : 휴게실 현황, 상태, 이용, 휴식공간, 휴게실 요건
- 복지 및 휴게실 희망

○ 응답자 : 504명

- 온라인 응답자 : 440명
- 거리 응답자 : 64명
- 분석 대상 : 458명

3. 응답자 특성

504명의 응답자 중 중복 응답자, 자영업자, 그리고 결측 값이 많은 응답자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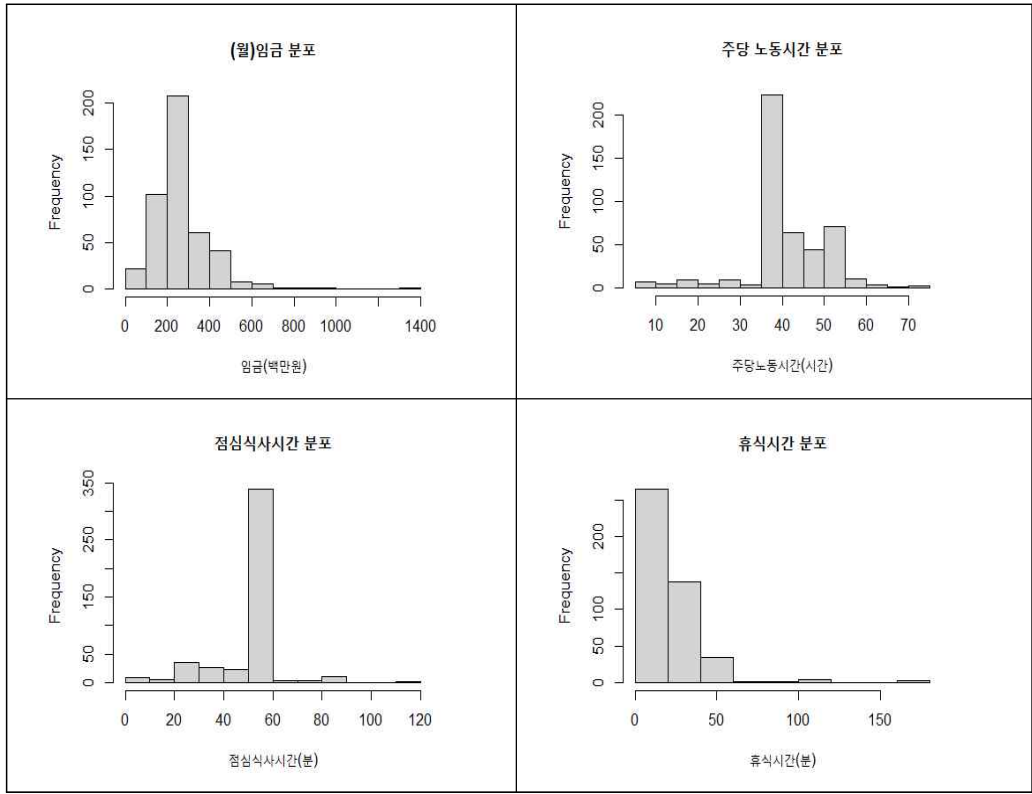
외한 458명을 대상으로 분석.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세대별), 노동시장 특성(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근속, 고용형태), 노동조건 특성(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음.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성별	남성	215	46.9	세대	20대	79	17.2
	여성	243	53.1		30대	184	40.2
노조	미가입	359	78.4		40대	148	32.3
	민주노총	82	17.9		50대	44	9.6
	한국노총	17	3.7		60대	3	0.7
					계	458	100.0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업종	제조	236	53.6	제조업	식품제조	12	5.1	비제조업	건설	9	4.4
	건설	9	2		섬유의복	9	3.8		정화재생	4	2
	도소매	46	10.4		목재종이	14	5.9		금융	5	2.4
	운수	5	1.1		석유화학	29	12.3		부동산	4	2
	음식숙박	10	2.3		비금속	0	0		사업지원	16	7.8
	정보통신	27	6.1		철강	14	5.9		전문기술	21	10.3
	금융	9	2		기계	32	13.6		출판방송	4	2
	과학기술	21	4.8		전기전자	57	24.1		IT정보	20	9.8
	사업지원	17	3.9		운송장비	58	24.6		통신	3	1.5
	교육	14	3.2		기타제조	11	4.7		도소매	46	22.6
	보건복지	27	6.1						운수	5	2.4
	개인	9	2						음식숙박	10	4.9
	기타	10	2.3						가사	3	1.5
									보건복지	27	13.2
									교육공공	21	10.3
									문화	1	0.5
									기타	5	2.4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규모	1~19	152	33.2	직종	관리직	4	0.9	근속	1년 미만	82	18
	20~49	85	18.6		전문직	91	19.9		2년 미만	63	13.8
	50~99	56	12.2		사무직	155	33.8		5년 미만	118	25.9
	100~299	66	14.4		판매직	48	10.5		10년 미만	91	20
	300 ~	99	21.6		서비스직	16	3.5		10년 이상	102	22.4
					숙련직	15	3.3	임금	저임금	53	11.8
				고용	반숙련직	106	23.1		중임금	344	76.4
					단순직	23	5		고임금	53	11.8
				노동시간	정규직	373	81.4	노동시간	11~35	37	8.1
					비정규직	85	18.6		36~40	225	49.3
									41~47	64	14
									48~52	107	23.5
									53~	23	5

	나이	근속	임금	노동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저녁시간
경기	38.3	6.2	285.8	42.6	55.5	20.6	24.9
	표22.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노동환경 (경기 평균)						



4. 면접자 특성

설문 응답자 중 심층면접에 동의해 준 이들 중 별, 세대별, 규모별, 업종 및 직종 별, 휴게실 유무 등을 고려해 경기 지역은 2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진행.

	지역	성별	세대	규모	업종	직종	휴게실	노조	인터뷰
1351	경기	여성	20대	300이상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온라인
3684	경기	남성	30대	300이상	제조업	반숙련직	없음	있음	온라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 실태와 쉼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이미숙 |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1.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쉼 권리 실태

○ 월담노조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쉼 권리 실태조사>를 진행함. 응답자의 33.3%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고, 휴게실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의 71.9%는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캠페인-일터에 쉼표를’ <내가 쉬는 공간 사진 찍어 보내기>를 진행. 총 50여명의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가 자신이 쉬는 공간 사진을 보내옴. 동시에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게 실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쉼 권리 실태에 대해서 들어봄.

1) 휴게실 없음 33.3%, 쉼 곳 없는 노동자들

○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휴게실, 탈의실, 식당,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자가 33.3%, 휴게실 대신 이용되고 있는 탈의실도 마찬가지로 33.3%가 없다고 답함. 구내식당이나 샤워시설은 응답자의 2/3 이상이 자기사업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함.

구분	휴게실	구내식당	탈의실	사위시설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있음	66.7	23.0	66.7	32.2
없음	33.3	77.0	33.3	67.8

<표 3> 편의시설 설치 현황

“탈의실은 휴게실이 아니죠.” [설 권리 심층인터뷰 : 시화공단 박00]

‘휴게실’ 이라고 이름 붙은 공간은 따로 없어요. 처음에 전 탈의실을 휴게실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들 잘 안 써요. 좁고 창문도 없는데다가 기계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탓이 큰 거 같아요. 가공 단조 설비다 보니까 소음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주간에는 저기 보이는 판넬 따위를 깔고 앉거나 하다가, 야간에는 관리자가 많이 빠지니까, 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데 가서 쿠션 있는 의자에 몸을 맡기고 반짝 피로를 풀기도 해요.

“설비 때문에 설 곳이 없어졌어요.” [설 권리 심층인터뷰 : 시화공단 박00]

설비가 늘어나면서 1층에 있던 사무실 겸 휴게실 같은 개념의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설비 때문에 사람들이 설 곳이 없어진 거죠. 평소에는 밖에 마당 겸 주차장에서 쉬는데, 비가 오면 갈 데가 없어요. 1년 가까이 얘기했어요. 건물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들어요. 샌드위치 판넬 끊어다가 이렇게 옆에 대고서 기둥만 박고 지붕하나 얹으면 되는 건데 그걸 해주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쉬어도 여기선 설 수가 없어요.” [설 권리 심층인터뷰 : 반월공단 윤00]

토요일 특근하면,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진걸까요. 우리 현장에서는 그걸 쪼개서 30분 일찍 퇴근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밥 먹고 밥알이 목구멍을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하는 게 너무 싫은데, 동료들은 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걸 택해요. 소화불량이 오더라도 빨리 ‘단절’ 하는 쪽을 택한 건가 싶어요. 어떻게 쉬어도 이 바닥에서는 온전하게 설 수 없으니, 내가 맘 편한 집으로 빨리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2) 휴게실 없는 노동자 71.9%, 작업장 내 휴식

○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들은 쉴 수 있는 장소도 마땅히 없음. 응답자들은 주로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휴식공간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고 있음. 화장실이나 탈의실, 회사마당, 도로변 등 적절한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머물거나 개인차 안, 커피숍 등에서 쉰다는 답변도 있음.

구분		비율 (%)
(사업장 내 휴게실이 없는 경우) 주로 어디에서 휴식을 취합니까?	작업장 내	71.9
	화장실	1.8
	탈의실	12.3
	회사 마당	5.3
	도로변	3.5
	개인 차 안	3.5
	외부커피숍	1.8

<표 4> 휴게실이 없는 경우 주로 휴식을 취하는 장소

○ 휴게실이 있는 경우에도 휴게실 환경은 그리 좋지 않음. 약 1/4의 응답자는 냉난방시설이 없는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음. 휴게실 필요 비품을 구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9.5%. 휴게실이 그냥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는 응답자도 21.6%에 달하고 있음. 시설 등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18.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23.4%), 휴게실이 있더라도 만족할 만한 시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그나마 다리 뻗을 수 있는 탈의실도 너무 좁아요.” [쉴 권리 심층인터뷰 : 시화공단 박00]

그리고 여성들이 쉰다는 탈의실은 휴게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탈의실에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남성 탈의실에 반의반도 안 돼요. 천장이 이렇게 처마가 내려가는 부분에 끼어 있는 거라서 키 큰 사람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쉬냐면 3명이 두 명은 이렇게 누워 있고, 한 명은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3명이 누울 수 있어요. 간신히. 여성들 인원도 안 되고, 공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설비 옆에서 그냥 박스 깨끗이 닦아서 겹쳐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지.

“니네가 일하냐? 기계가 돌아가지!” [쉴 권리 심층 인터뷰 : 반월공단 윤00]
이게 CNC나 로봇 이런 것들을 돌려놓고 나가서 쉬라고 해요. 돌려놓고 나가

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저쪽에서 이제 알람이 울리는 거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내 설비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들어가서 알람 해제 끝내죠. 더 큰 건 생산 수량 압박. 그러니까 기계를 다 풀타임으로.. 이게 기계를 꺼놓으면 왜 이거 밖에 못 했냐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야! 니네가 일하냐? 기계가 돌아가지! 그냥 돌려놓고 나가서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압박이 되는 게 지금처럼 알람이 울면 들어가서 열심히 쉬는 시간에도 그 조치를 해놓는 사람과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고철쓰레기 비 안 맞힐 공간은 있는데, 사람이 안 맞힐 공간은 없는 거죠”

[של 권리 심층인터뷰 : 시화공단 객00]

그리고 아까 비가 올 때 어디서 쉬느냐, 실제 쉬는 공간이 폐기물 고철 스크랩 쓰레기 그런 거 버리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비를 피할 공간은 있는데 쓰레기랑 고철 스크랩이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는 처마가 있어요. 그 틈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쓰레기를 비 안 맞힐 공간은 있는데 사람이 안 맞힐 공간은 없는 거죠.

※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나요? 휴게실 없는 노동자들이 보내준 ‘쉬는 공간 사진’

◆작업장



△ “휴게실은 없고, 현장에서 발포지 깔고 쉽니다.”

※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나요? 휴게실 없는 노동자들이 보내준 ‘쉬는 공간 사진’

◆작업장 내 의자



△ “주로 현장에 있습니다. 일하다가 시간 되면 작업 의자에서 쉬는데, 작업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녀서 좋지는 않습니다.”

◆작업장 문 앞



△ “휴게 시간에도 자동설비가 돌아갑니다. 알람 사이렌이 울리면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조치를 하거나, 알람을 꺼야 해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문 앞에서 의자 놓고 쉽니다”

※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나요? 휴게실 없는 노동자들이 보내준 ‘쉬는 공간 사진’

◆탈의실



◁ “탈의실 및 휴게실
입니다. 공간이 좁고,
창문이 없어서 무척 답
답합니다.”

◆회사마당



△ “특pecially 쉼 만한 공간이 있질 않아서 다들 공장 마당 곳곳 아무 곳에서나
걸터앉아 쉽니다.”

※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나요? 휴게실 없는 노동자들이 보내준 ‘쉬는 공간 사진’

◆창고



△ “휴게실은 아니고 이것저것 필요 없는 물건 쌓아두는 곳인데 밥 먹고 잠깐 앉아서 쉴 정도는 됩니다. 지붕이 있어서 비를 맞지는 않습니다.”

◆길가(아무 곳이나)



△ “특별하게 정해 놓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는 곳이 쉬는 곳이죠.”

※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나요? 휴게실 없는 노동자들이 보내준 ‘쉬는 공간 사진’

◆회사 담벼락



△ “회사 밖 담벼락 아래에 받침목으로 만들어 놓은 흡연실입니다. 회사 형님들이랑 주로 여기서 쉽니다.”

◆공동 식당 앞



△ “우리 회사 밥 먹는 식당 앞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주로 잠깐씩 쉬는데, 요즘은 더워서 그것도 힘드네요.”

※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나요? 휴게실 없는 노동자들이 보내준 ‘쉬는 공간 사진’

◆개인 차안



△ “점심 먹고 제 차 안에서 쉽니다. 회사에는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현장 사무실 책상



△ “점심 먹고 현장 책상 위에서 30분 정도 한숨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립니다.”

3) 68.8% 휴게실이 필요하다, 61.6% 공동휴게실 사용하겠다.

○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68.8%가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답함.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도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로 높게 나타남. 직종을 불문하고 휴게실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작업장과 분리된 공간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결국, 작업장에서 쉰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딱히 작업장이 편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임.

○ 작은 사업장이 많은 공단의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 밖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61.6%로 높게 나타남.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77.8%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음. 다만, 공동휴게실이 마련되더라도 회사와 멀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점심을 먹는 식당 근처에 공동휴게실이 있으면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높음.

“식당 근처에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설 권리 심층인터뷰 : 시화공단 박00]

거점마다 있는 공장 식당 외부인 환영이라고 쓰여 있고, 그런 식당 근처라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식당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죠. 진짜로 공동휴게실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동 식당 옆 공동휴게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멀면 안 되고, 가까운 곳이면 이용 하겠죠” [설 권리 심층인터뷰 : 반월공단 윤000]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되는, 어떤 규모의 공장 노동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휴식공간이면... 이렇게 바꾸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소형사업장이고 쉬는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면 거기 가서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멀면 안 가요. 멀면 누가 그 아까운 휴식시간을 낭비하면서 가겠어요. 또 뭐하나 지어놓고 돈 낭비하는 거죠.”

4) 소결 : 제대로 된 휴게공간 보장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7시간이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84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동시에 안전사고로 연결되기도 함. 따라서 적절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제대로 된 휴식공간 확보는 노동 복지를 넘어 노동 안전보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그런데 반월 시화공단의 50인 미만 사업장 58.2%는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대로 된 휴식공간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보장은 더 미뤄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법으로 휴게시설을 규정한 것은 휴식권이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고, 복지의 영역을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한 것임.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공단의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탈의실에서, 회사마당에서, 길가에서, 화장실에서, 창고에서, 개인 자동차 안에서, 현장 사무실에서, 회사 담벼락 아래서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음. 심지어 어떻게 쉬어도 회사 내에서는 편하게 쉴 수가 없으니 휴식시간을 줄여서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좋다는 경우도 있음. 결국, 적절한 휴게 시간과 제대로 된 휴게공간은 어느 한 가지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쉼이 될 수 있음.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과태료 면제 등으로 법의 강제가 닿지 않는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많은 공단지역에서 휴게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인식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좁은 사업장 여건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음. 그 대안으로 회사 밖 공동 휴게공간 마련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작은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잠깐씩이라도 쉴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을 중심으로 공동휴게실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함.

2. 설 권리 보장을 위한 모색 - 공동휴게실

1)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활용 방안

○ 201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개칭 함. 2010년 이전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과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되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해당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시설로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시설, 물류시설, 어진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상점 등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 현재(2022. 3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675곳, 신설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도 306곳 임. 건설사들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하고 있음.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 골프장, 루프탑 풋살장, 옥상 정원, 테라스 라운지 등 휴식공간도 속속 적용하고 있음. 반월시화공단에도 아파트형공장을 비롯해 지식산업센터가 41곳(시화15/반월26) 입주해 있는 상태임. 최근 입주한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편의점 등이 함께 입주해 있기는 하나 실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없음.

※ 반월/시화 지식산업센터 현황

(2021년7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구분	지식산업센터명	주소(지번)	관할기관	승인일	업체수	종업원수
반월 국 가 산 단	(주)에치케이씨 2차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2번지	산단공경기	20200616	1	150
	5차 유진타워테크노밸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18-5번지	산단공경기	20151207	25	144
	광림원시타워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13번지	산단공경기	20090812	2	16
	광양프린티어밸리2차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3-3번지	산단공경기	20140919	133	624
	금석산업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7번지	산단공경기	20120504	54	449
	대우테크노피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1번지	산단공경기	20091211	207	868
	반월디지털지식산업센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3-6번지	산단공경기	20110523	4	10
	반월테크노시티(주)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47-6번지	산단공경기	20020523	25	161

	서흥테크노벨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4번지	산단공경기	20031210	258	713
	스마트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9번지	산단공경기	20200826	515	1709
	스마트테라팩토리 복합시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0-3	산단공경기	20210623	0	0
	안산 코리아 디지털타워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5	안산시	20210420	0	0
	안산디지털파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3번지	산단공경기	20040709	74	170
	유진타워 테크노벨라-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8-5번지	산단공경기	20120531	6	82
	유진타워건설(주)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9-1번지	산단공경기	20110516	9	62
	유진타워건설(주)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71 번지	산단공경기	20120116	1	3
	정우벤처타운 2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번지	산단공경기	20040305	197	588
	정우벤처타운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1-2번지	산단공경기	20020402	44	224
	제이에스타워(주)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0-1번지	산단공경기	20110215	25	85
	타원 TAKRA 5차 지식산업센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4-2번지	산단공경기	20190614	144	710
	타원 TAKRA I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5-5번지	산단공경기	20130411	138	596
	타원 TAKRA II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5-3번지	산단공경기	20140904	217	1087
	타원 TAKRA III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5번지	산단공경기	20151218	377	1220
시 화 국 가 산 단	EG지식산업센터	시흥시 정왕동 1235-2 번지	산단공시화	20110107	28	127
	길스베이에스티 지식산업센터	시흥시 정왕동 1277-14번지	산단공시화	20150513	184	528
	동양타워 지식산업센터	시흥시 정왕동 1290-14번지	산단공시화	20160818	136	370
	동우디지털파크	시흥시 정왕동 1288-2번지	산단공시화	20021010	364	474
	만성지식산업센터	시흥시 정왕동 1263-1번지	산단공시화	20171011	0	0
	보성스퀘어원 지식산업센터	시흥시 정왕동 1287-5번지	산단공시화	20160517	227	245
	삼양스마트테크노파크	시흥시 정왕동 1234-12번지	산단공시화	20160623	214	580
	삼양스마트테크노파크2	시흥시 정왕동 1234-6번지	산단공시화	20180905	0	0
	시화하이테크지식산업센터	시흥시 정왕동 1234-7	산단공시화	20210526	74	284
	정왕대명빌딩은 민성지식산업	시흥시 정왕동 1263-1번지	산단공시화	20180608	0	0
	코포모(주)	시흥시 정왕동 1289-5번지	산단공시화	20110727	78	251
	코포모테크노센타II	시흥시 정왕동 1289-5번지	산단공시화	20050905	153	434
	타원타크라6차	시흥시 정왕동 1255-10번지	산단공시화	20200821	0	0
	트윈지식산업센터	시흥시 정왕동 1286-1번지	산단공시화	20140306	22	244
	풍진화학 지식산업센터	시흥시 정왕동 1696-15번지	산단공시화	20121005	0	0
	시화아파트형임대공장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번지	산단공시화	19931215	54	252
	시화타워지식산업센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9-7번지	산단공시화	20111021	54	246
	피앤피지식산업센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37번지	산단공시화	20131018	2	37

○ 참고로, 안산시와 시흥시는 공모사업으로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같은 사업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용화상회의실 구축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도 담고 있음. 그러나 휴게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30%의 자부담이 있음.

※ 2022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 2022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공고

1)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회의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등)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2)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 (회의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등)
- ※ 지원제외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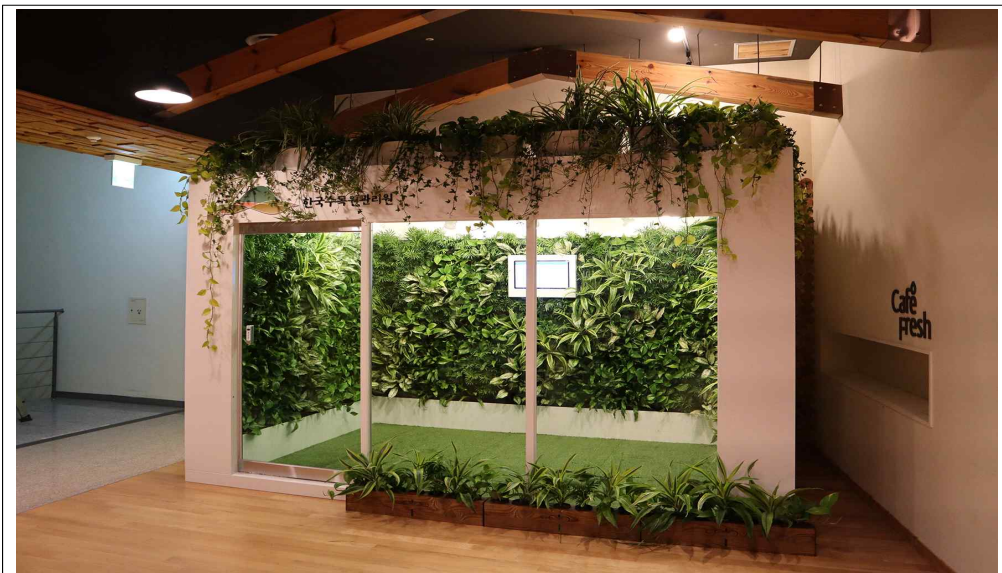
○ 지식산업센터 내 공동휴게실 마련 사업은 실제 입주 기업들이 작은 사업장이라는 점,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 관리적 측면이 쉽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 됨. 우선은 1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를 수정 보완해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임.

2) 스마트휴게실/스마트정류장 활용 방안

■ 스마트 휴게실(스마트 가든)

○ 식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화 등 신기술을 도입한 <스마트가든>은 ‘노동환경 개선 및 국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청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 임. 노후 산단(144개단지)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대 개조 계획’,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스마트 그린 산단’ 등과 협업으로 사업 중 임.

※실제 스마트 휴게실 모습



○ 안산시의 경우 2020년 12개소가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했고, 2021년에는 신청 사업장이 없었음. 시흥시의 경우는 지난해 배곧생명공원과 오이도박물관에 스마트 가든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그 외에 청주(오창 산업단지 사업장 2곳), 인천(남동공단 4곳, 서운 일반 산단 2곳, 강화 일반 산단 3곳), 서울(14개 산단), 경북 구미(구미공단 15곳, 농공단지 2곳), 순천(해룡 산단, 율촌 산단 각1곳) 등에서도 설치함.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의 방식이 개별기업이 신청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명확한 유인책이 없는 이상 크게 활용되지는 못함.

■ 안산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

- 사업대상 : 안산스마트허브 입주 기업
- 지원규모 : 1개 소당 30백만원 (국비50% 시비50%)
- 사업내용 :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스마트 가든을 설치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국민편의 증진
- 신청방법 : 안산시청 녹지과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스마트 가든볼을 설치하여 근로환경개선 및 국민편의증진
- * 관수, 조명, 공조,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지관리비 최소화
- 사업기간 · 규모 : ' 20년 ~ 계속 / 연 336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비는 국비 100%(당해년도만)
- 시행주체 : 산림청 ·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자체

□ 대상지 선정

- 노후 산단(144개단지) 및 공공시설(병원, 도서관, 관공서, 학교 *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 * 2021년부터 학교시설을 추가하여 공공시설 사업대상지 확대
 - 실내 유휴공간(3m×3m 내외)을 활용하여 스마트 가든을 설치
 - 산단은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스마트 · 청년 산단 사업지역을 우선 추진

○ 그런데도 스마트가든은 비교적 작은 공간(3m*3m)을 활용하여 설치되고 있어서 면적을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개별사업장이 아니라도 일정 규모가 되는 공동 식당 내/외 등을 개/보수해 설치하거나, 여러 개의 임대공장이 모여 있는 단지 등에 설치해 보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사업주의 신청방식이 아닌 산단공과 지자체가 적극

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스마트쉼터(정류장)

○ 성동구에서 설치한 스마트 쉼터는 출입문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체크를 통과해야 출입문이 열리고, 공기 중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자외선(UV) 살균기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5.94㎡으로 비교적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 시스템과 지붕의 태양열 패널을 통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가 갖춰져 있음. 이러한 스마트 쉼터는 최근 영광군, 괴산군에서도 추진 중임.



○ 스마트쉼터의 경우는 공동휴게실 방안보다는 공단 곳곳에 배치해 점심시간 등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공단 내 작은 사업장 주변 도보 면적이 좁은 것을 고려하면 5.94㎡ 면적의 스마트 쉼터와 같은 형태를 거리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

3) 구내/외부 식당 Remodeling, 폐업한 컨테이너 매점 활용 방안



○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실 이용에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접근성’임. 공단 곳곳에 공원이 있어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거리+시간’ 때문임.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사업장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공동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함. 그런 측면에서 구내/외부 식당은 가장 현실적인 공간임. 작은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장 내 식당 보다는 외부 식당을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매일 드나드는 가까운 곳’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활용도가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카카오맵 기준) 반월공단 250여 개, 시화공단 420여 개의 구내/외 식당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대부분 20평에서 40평까지 비교적 적은 규모임. 따라서 식당 한쪽을 휴게실로 만드는 것에 식당 주인들은 선뜻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규모가 있는 곳을 설득해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거나, 식당 근처를 중심으로 외부에 스마트휴게실/스마트쉼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

3. 결론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을,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권을!

휴게시설 설치의무 법제화는 휴게권을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쉼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인되고 보장되었다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정부는 산안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을 통해 이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두지는 않음.

휴게권의 차별적 적용 이유에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우선되고 있음. 반월시화공단의 입주 업체는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체로서 시흥지역의 평균 고용 규모는 11.2명에 불과하고, 안산 지역의 경우에는 17.0명에 불과함. 따라서 반월시화공단 다수의 업체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실 의무 적용이 되지 않게 됨.

물론 휴게실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음. 그래서 법은 공동 휴게실 개념을 두고 있음.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도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공동 휴게실을 마련해야 할 유인은 높지 않고, 정부 지원 방안도 현재의 정부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신청에 의지한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미 의무 자체가 면제된 상태에서 별도의 지원을 신청하고 자비를 들여가며 정부 지원 정책에 합류하려는 사업주는 극소수일 것임.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오랜 차별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공동 휴게시설’ 개념을 두어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할 물리적 조건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 휴게실을 적극 마련 해 나가야 함.

공동휴게실은 ①법 취지는 모든 사업장이 휴게실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②협소한 사업장 규모 때문에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공간에 공동의 휴게실을 마련하는 것 ③여기서 외부의 의미는 사업장과 최대한 가깝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④이에 따라 공단 곳곳에, 되도록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⑤노동자들의 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을 지니지 않아야 함.

따라서 앞서 이야기 한 1)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활용 방안 2) 스마트휴게실/스마트정류장 활용 방안 3) 구내/외부 식당 Remodeling이나 폐업한 컨테이너 매점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최대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무엇보다 공동휴게실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의무를 대신하거나 생색내기용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하며, 법에서 배제된 2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진행되도록 해야 함.

○ 지자체, 산단공, 사용자단체, 노동계가 함께 공동 휴게실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두고 있음. 같은 조례 13조(산업안전 및 보건) ①항으로는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

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업을 담고 있음. 위와 같은 조례는 공단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나아가 산업단지 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 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설립됨. 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법 산집법 제45조의21(사업)에서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과 시행령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에서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있음.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21.06.28.)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에는 단순생산 공간의 탈피와 창조적 복합공간으로 재편을 목적으로 한 '생산 공간과 생활환경의 조화를 위한 근로자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을 담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노동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은 미미한 수준인 것도 사실임.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공단 내 휴게시설, 건강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제출하고 시행해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산업재해 예방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는 1134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서 가장 큰 사용자 협회임. 산집법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관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과 복리후생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함.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기본적 권리로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일터에서 적절한 시간과 공간의 보장을 통해 쉬면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만,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의 휴게실을 대안으로 논의 해 나갈 필요 있음.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이 함께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테이블>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해 나가는 것을 제안함.

안산시 「'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4. ~ '23. 12. (총 9개월)
- 총사업비 : 50백만원 [도비 15백만원(30%), 시비 35백만원(70%)]
- 사업대상 : 5개소 (① 사회복지시설, ② 중소기업체, ③ 요양병원)
-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신청 >

- 3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2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 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

- (신 설) 휴게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
- (시설개선)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등
- (교체·구입)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등

※ 휴게공간 시설개선 없이 단순 비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22년 사업 추진 현황

○ 사업예산 : 41백만원 [도비 20.5백만원(50%), 시비 20.5백만원(50%)]

○ 사업자 : 4개소

○ 주요내용 : 휴게실(샤워실 포함) 시설 설치, 냉·난방시설, 환기 시설 등

○ 기타사항 :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1,000부 제작 및 배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제언

I. 현황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2022. 8. 18.부터 2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 8. 18.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임
- 노동단체 '노동자의 미래'의 조사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458명 중 43.2%가 휴게실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제조업은 36%, 비제조업은 51%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함
20인 미만사업장에서 58.5%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42.4%도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관내 기업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운영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임

II. 문제점

- 기업주의 인식부족 또는 휴게시설 설치비 부담

- 휴게시설 설치가 단지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만 증가시킬 뿐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에 기여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주가 있을 수 있음
- 휴게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 및 공간상황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를 주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규모의 한계

-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0억원의 규모로 70여 곳의 기업에 지원하였음
- 시흥시도 3800만원의 규모로 4곳의 기업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원 금액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요원한 상황임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주, 노동자 간 소통기회 부족

-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주, 노동단체 간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여 해당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청취와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지방의 지원정책 홍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III. 제언

○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개선 노력 및 우수 휴게시설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중앙정부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해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기업주에게 전달하고 우수 휴게시설 운영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지방정부도 관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기업인단체에 직접홍보 및

독려하고 우수 휴게시설 운영기업에 대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

○ 영세기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공동기금설치 및 운영

-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개선예정인 기업의 기금 적립을 시작으로, 뜻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역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으로 출자하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예산 일부를 출자하여 한시적인 공동기금을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세기업들의 공동 휴게시설 또는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 보조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노동단체 등 대화 채널 구축

- 현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안내와 그에 따른 기업주와 노동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재정지원방안, 노사정의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 구축 필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특별지도기간 운영,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I.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 8. 17. 개정, '22. 8. 18. 시행)으로
 -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 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II.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①전화 상담원, ②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부칙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 '22. 8. 18.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23. 8. 18.부터 시행
-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23. 8. 18.부터 시행

○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96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0만원 → 2차 위반 시 1,500만원 → 3차 위반 시 1,500만원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250만원 →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및 별표 21의2

- ❖ (크기)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 (위치)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휴게시설** 설치 가능

: 이 경우 바닥면적 = (6㎡ × 사업장의 개수)의 면적 이상

III. 조치사항

□ 홍보(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 홍보

-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
- 관내 사업장
 - 제조업·건설업체: 경기서부지역 화학공장안전관리협의회(79개소),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협의회(60개소), SNS(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네이버밴드, 사업장 250개소)
 - 서비스업 등: 50명 이상 사업장 전체 1,195개소

○ 홍보 요청

- 자치단체(안산시·시흥시)
-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반월공단)·시화지사(시화공단)·시화MTV사업소(시화MTV)
- 상공회의소(안산·시흥)

□ 특별지도기간 운영

- 휴게시설 설치하는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10. 31.까지 특별지도기간으로 지정·운영
- 사업장 점검·감독 및 신고사건 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사업장은 先 시정지시하여 개선조치(필요시 시정기한 연장)

□ 감독 실시

- 휴게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이 종사하는 업종 중심으로

감독 실시 (~ 10. 31.)

- 대상: 5개소(대학교 1개소, 아파트 4개소)
- 건설현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온도·조명 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토록 관련 고시 개정('22. 6. 2.)

□ 재정지원 등

IV. 향후 계획

□ 재정지원 등

- 50명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23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224억원 편성)
 -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하여 50명 미만 사업장 6,588개소 휴게시설 설치 지원(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 구체적인 설치방안 지도
 -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마련토록 지도

휴게시설 관련 법령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p>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8. 17.]</p>	<p>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p>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 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p>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부칙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div><div>[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div><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rowspan="2">세부내용</th><th colspan="3">과태료 금액 (만원)</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하.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td><td>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td><td></td><td>1,500</td><td>1,500</td><td>1,500</td></tr><tr><td>거.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td><td>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td><td>50</td><td>250</td><td>500</td></tr></table></div>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1,500	1,500	1,500	거.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div><div>[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제194조의2 관련)<신설 2022. 8. 18.></div><div>1. 크기</div><div>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div><div>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div><div>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div><div>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div></div>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1,500	1,500	1,500																		
거.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p>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p> <p>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p> <p>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p>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p> <p>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p>
--	--	--

		<p>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p> <p>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p> <p>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p> <p>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p> <p>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p> <p>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p> <p>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p> <p>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p> <p>※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p>
--	--	--

		<p>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p> <p>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p> <p>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p>
--	--	---

토론(4)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산단혁신팀장 손종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지원을 휴게시설 설치 검토

I.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제조업 최대 집적지인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음.

그러나, 착공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의 지속적 증가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산업단지 영세화로 신산업 창출이 미흡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 반월시화산단(스마트허브)의 경우도 교통문제, 청년의 기피, 기업 혁신역량 하락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대중교통 불편, 주차난 등 교통문제 심화, 환경·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젊은 인력 유인 환경 미흡, 근로자의 고령화와 기업의 영세화로 인한 혁신역량 약화 등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착공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혁신공간으로 개선하고자 복합·편의시설, 업종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구조고도화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단환경개선펀드, 민간대행사업, 휴폐업공장리모델링, 혁신지원센터 구축, 복합문화센터 구축,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의 사업이 있음.

- 반월시화산단(스마트허브)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공간을 확충**하고 비즈니스호텔,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을 통한 **편익 및 정주여건 개선**, 도금업종 집적화 공장, 공동폐수처리시설 등 **친환경시설 확충**, 주유소 및 충전소, 물류센터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II. 공동휴게시설 설치 검토

“202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복지실태 조사결과”, 반월시화산단에 약 43.2%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휴게시설 설치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우리 공단에서 추진 중인 구조고도화사업 중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와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사업에서 일부 근로자를 위한 공동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고층화 및 입체적 개발이 진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공동휴게시설 설치에 최적지일 것임.

다만, 공동 휴게시설이 인접한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감안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고도화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일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끝.

토론(5)

－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